

시티 & 피쳐

# 광주시 '브랜드 택시' 제동

## 카드결제 수수료 등 해결 안돼 시행 시기 늦춰

광주시가 택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브랜드 택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26일 광주시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법인 및 개인택시 각 500대씩 모두 1천 대의 브랜드 택시를 운행할 계획이었으나 잠정 보류됐다.

시는 뒤늦게 전자 결제시스템 중복 설치에 따른 사전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데다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시행을 오는 7~8월께로 늦췄다.

경제산업국이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페이먼트'(U-전자결제) 환경 구축사업과 건설교통국의 브랜드 택시사업 간 시스템 중복으로 행정력

낭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브랜드 택시사업을 일단 보류한 것.

그러나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이라는 연관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서 간 면밀한 검토없이 '엇박자' 업무를 추진, 사업 차질을 불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U-전자결제 환경 구축사업은 시 전체의 소액 금융결제 방식을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바꾸는 사업이고, 브랜드 택시 사업은 택시요금을 신용 및 교통카드로 결제하는 사업이다.

여기에서 시는 브랜드 택시사업 시행을 앞두고도 이 사업을 맡은 개인·구축사업과 건설교통국의 브랜드 택시사업 간 시스템 중복으로 행정력

의 한계를 드러냈다.

브랜드 택시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장착하고 호출 서비스와 신용 및 교통카드 결제가 가능한 택시로 시는 GPS 장착비용 등 70%(70만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현재 광주시 내 택시는 법인의 경우 76개 업체에서 4천76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택시는 3천506대다.

시 관계자는 "U-전자결제 사업과의 연계문제, 카드결제 수수료 등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 시행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일 뿐이다"며 "오는 7~8월께는 브랜드 택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지구촌 문화 마주보기... 전직원 1일 디제이... 1인1技 배우기

광주시가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 부서마다 한 가지씩 실천 과제를 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시는 최근 부서별 실천과제 80건을 발굴하여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분기마다 추진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업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원들의 자기 진작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월부터 각 과별로 동아리를 꾸려 선정한 실천 과제 유형도 다양하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각 부서가 맡고 있는 주요 업무와 연관있는 실무형 과제. 투자유치기획단은 '기업 친화 마인드 함양'을, 문화수도 중심도시 조성 주관부서인 문화수도정책관실은 '지구촌 문화 마주보기', 문화예술과는 '문화와

## 광주시 '신바람 직장' 만들기 부서별 이색 실천 과제 만발

함께하는 사무실 풍경만들기'를 과제로 삼았다. 또 마케팅지원팀은 '가족과 함께 각종 축제 참여하기'를,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동물사육 혁신 미팅 개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는 '빛어울수(水) 문화산책'을 각각 과제로 선정했다.

특목 뛰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든 참신한 과제도 많다. 건설행정과는 '금요 대화장터 운영',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매주 한 차례씩 직원들이 사내 방송을 진행하는 '전직원 1일 디제이(DJ) 하기', 도로과는 '항기로운 사무실 만들기'를 추진한다.

종합건설본부 건축설비부는 선배가 후배를 위한 티타임을 마련해 어색함을 극복하는 '명랑 버스 운영'을 과제로 정했다.

이 밖에 '1인1기(技) 배우기'(감사관실), '하루 3분 몸 관리 프로젝트'(수질보전과), '연고지역 문화탐방 가이드 만들기'(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팀) 등 직원의 자기계발을 위한 과제나 '직원 가족 생일 축하이벤트'(건축주책과) 등 직원간 화합 도모, '가족과 함께 하는 사회봉사활동'(법무담당관실)과 같은 봉사 활성화를 위한 과제도 눈길을 끌었다.

김집중 혁신평가담당관은 "공무원노조와 함께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연말 성과관리에도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서·북부 소방서 첨단 소방지휘차 배치

##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노후 소방차 8대도 교체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최정주)는 최첨단 화재진압 지휘용 차량 2대(사진)를 서부와 북부소방서에 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배치된 지휘차는 25인승 중형버스를 개조해 만든 것으로 외부에는 홍보용 LED창이 설치됐고, 내부에는 응급상황 시에 소방헬기 및 응급의료센터(1339)와 통신이 가능한 대역 변환기 등 최첨단 통신·방송장비가 탑재돼 있다.

특히 지휘차는 화재현장에서 과학적으로 화재발생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로, 대규모 화재현장에서



효과적인 상황통제(CP)가 가능하다.

한편 시 소방본부는 올해 15억3천여 만원을 들여 노후 된 소방차 8대(펌프차 5, 구급차 2, 굴절차 1)를 교체하고, 중형차용 구급차 2대를 보강할 계획이다.

/인현주기자 ahj@

# 진월저수지 일대 '진월체육공원' 조성

## 15만여㎡ 축구장·자연체합시설 등 들어서

광주 남구 진월동 진월저수지 일대 15만여㎡가 주민들의 체육활동과 자연 체험·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광주시는 2013년까지 823억원을 들여 이 지역에 축구장과 골프연습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운동시설과 야생초 화원 등 자연체합시설을 갖춘 '진월체육공원'을 조성기로 하고 이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가 오는 29일 이 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거쳐 내년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공원에는 실내유도장과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등 인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체육시설이 들어서고 저수지를 활용한 습지관찰도 조성된다. 대형 광장과 활인점,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도 갖춰진다.

제 2순환도로변에 위치한 이 일대



는 교통여건은 좋지않아 주변 도로보다 4~5m 낮고 대부분 토지가 보전가치가 낮은 4~5등급의 논밭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빛어울수(水)' 생산 크게 늘린다

## 광주시 35만병으로...민원인에 제공도

광주시는 시 수돗물 브랜드 '빛어울수(水)'의 생산량을 올해부터 대폭 늘리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만들기 시작한 빛어울수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생산량을 지난해 7만병에서 올해 35만병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 상수원인 동복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와 시 상수도사업본부 용연 정수사업소에서 생산되는 빛어울수는 350ml와 1천800ml의 두 종류 페트 병에 담겨진다. 올해 생산량은 350ml 30만병과 1천800ml 5만병 등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수도법상 빛어울수는 일반에 판매될 수 없지만 단수나 재해지역 비상급수용 또는 시가 개최하는 각종 주요행사 등에 제공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빛어울수에 대한 시민 인지도도를 높이기 위해 청사 내 민원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에 쇼케이스를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등 각종 체육행사와 다양한 축제가 열려 빛어울수를 더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북구 'U대회 범시민추진협' 본격 가동

광주시 북구가 오는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광주 유치 성공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북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치 열기 확산을 위해 최근 '북구 U대회 범시민추진협의회'를 구성,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북구는 다음달 15일까지 광주역과 전남대학교 후문, 구청 민원실 등에서 20만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홍보전단지 8천장(5종)을 배포기로 하는 등 광주 유치기원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구청 홈페이지와 동(洞)주민자치센터, 민원실 등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 뒤 3만명 규모의 범시민지원단을 만들 예정이다.

/이종형 기자 golee@



www.kw.com/medicall

1544-8567

마시는 豚테반

Big-Event

061-528-7788